

사회

기름값 아까워... 목숨 건 겨울나기

나주 장애인 부부 연탄가스 중독 숨져
담양 일가족 6명 아궁이 장작불 질식

나주에서 장애인 부부가 연탄가스
에 중독돼 숨졌다. 또 아궁이에 불을
지핀 뒤 방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6명
이 가스로 화를 모면하는 등 경기
침체 속에 난방용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연탄·장작을 사용하다가 화를
입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어려울 정도로 정신과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가씨
의 집에서 강씨 부부의 모습을 마지
막으로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시신에 외상이
없는데, 주방에 연탄 화덕이 있었
던 점으로 미뤄 전날 밤 날씨가 추워
지면서 연탄을 피우고 잠을 자다
다들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을 조사 중이다.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쌍둥이 정영철(형·오른쪽), 광철군이 17일 광주시 화정동 집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쌍둥이 나란히 육사 합격
광주 서석고 정영철·광철 형제
"하이테크 안보 군사전략가 꿈"

"첨단 하이테크 안보시대를 리
드하는 군사 전략가가 되고 싶습
니다."
17일 발표된 육군사관학교 합
격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일란성 쌍둥이 정영철·광철(17·
광주 서석고)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군이 되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2분 간격으로 태어나 형(영철)
과 동생(광철)이 됐다. 이들 형
제는 육군기갑학교에서 30여년
근무, 상사로 예편한 할아버지 영
향이 커 육사에 지원했다.
광철군은 "할아버지께서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자
됐으면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
하셨다"고 말했다. 아버지 정종
민(43)씨도 한 때 육사지망생이
었다고 한다.
이들은 각자 성격이 다르지만,
첨단 무기로 전장하는 시대에 걸
맞는 군사 정책·군사 외교가가
되는 게 공통의 꿈이다. 둘 다 컴
퓨터 프로그래밍에 심취하는 등
첨단 IT 부문에 남다른 재능을 갖
고 있다고 한다.



희망 산터원정대 발대식
1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총괄임원 조창현)은 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구청, 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 산터원정대' 발대식을 열고 광주지역 소외계층에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백화점은 발대식에서 사내 기부제도를 통해 한해 동안 모은 기부금 5000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말·휴일 평년기온 회복 '포근'

주말과 휴일인 18일과 19일, 광주
와 전남·북지역에는 날씨가 풀리
고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8일 광주와 전남·북지역은 고기압
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
상된다"며 "낮부터는 평년기온이 회
복될 전망"이라고 17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11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과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간만에 맑은 하늘' (Clear sky after a while),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Mokpo, and Jeonju.

구제역 방역초소 시·군경계까지 확대

구제역이 경기지역까지 확산함에
따라 전남도가 그동안 도 경계 주
요 도로에서 운영하던 구제역 방역초
소 시·군간 경계 주요도로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축산농가 입구마다 생식
회를 살포하고 농가 집합 교육, 친목
모임 등 외부접촉을 삼가하도록 했으
며 일반 주민들도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과 인천 등 경기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바이러스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철
새 도래지 관광도 당분간 금지해 즐
것을 요청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중학생이 수업시간중 여교사 욕설·폭력

강원 강릉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이 수업시간 중 여교사에게 욕설하
고 폭력까지 휘두른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강릉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날 오후 3시께 이 학교 3학년 5교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서 A(47.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
는 B(16)군에게 "왜 수업에 늦느냐"
고 나무랐다. 이에 B군은 A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복도도 나갔고, 이
를 제지하는 A 교사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침까지 뱉는 등 폭력을 휘두
르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인사

◆광주은행
◇1급 승진 ▲여성지원본부 본부
장 겸 여성심사부장 강정애 ▲외환영
업부장 김국현 ▲계림지점장 김해경
▲문화동지점장 이상주
◇2급 승진 ▲구로금융센터지점장
김상섭 ▲양산동지점장 김종석 ▲풍
암동지점장 박병일 ▲동운지점장 신
안수 ▲백운동지점장 염규승 ▲여천
지점장 오영수 ▲동광양지점장 정윤
택
◇3급 승진 ▲인사부 부부장 강홍
▲각화동지점 부지점장 고재복 ▲인
사부 조사업 권택은 ▲검사부 선임검
사역 김금제 ▲종합기획부 부부장 김
응규 ▲동림지점 부지점장 김재석 ▲
기업영업전략부 부부장 김형수 ▲PB
복합사업부 부부장 나문섭 ▲방림동
지점 부지점장 남상무 ▲인사부 조사
역 박원재 ▲여천지점 부지점장 박태
▲사회공헌사무국 부국장 백영식 ▲
투자금융부 부부장 겸 시사역 양성
현 ▲상무금융센터지점 부지점장 유
봉재 ▲응암동지점 부지점장 유한용
▲목포지점 부지점장 이명인 ▲IT지
원부 부부장 전철민 ▲해남지점 부지
점장 정문석 ▲리스크관리부 부부장
정일선 ▲염주지점 부지점장 정창근
▲인사부 조사업 권철석 ▲여의도지
점 부지점장 조영욱 ▲순천지점 부지
점장 조해란 ▲중소기업지원센터지
점 부지점장 최길준

생활 게시판

Life notice section containing various announcements such as '희곡' (Drama),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Condolence), and '그린장례식장' (Green Funeral Home).



10만원 주지 않으려
성매매 여성 살해

전주 덕진경찰은 17일 성매매 여성
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2)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 덕진구의 한
남성전용 휴게장에서 만난 A(31)씨
와 모델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고 A씨
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시체를 모텔 배관다
에 유기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
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 대금 10
만원을 주지 않으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
1억여원 뜯은 30대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17일
국가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해커인
것처럼 속인 뒤 전직 대통령의 비자
금을 해킹할 경비를 대달라며 상대방
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37)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초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34조
원을 해킹해 회수하던 6조8000억원
을 받기로 했었다 해킹에 필요한 경
비를 대면 비자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
여 이모(65)씨로부터 회금까지 60
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씨의 아들 얘기를 듣고 이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
러났다.
김씨는 자신이 국가에서 고용된 해
커로 모 국가기관 직원의 해킹 지시
를 받고 9800여원을 해킹했으나 수수
로 280여원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교도소에 수감시킨 것이라고 상대방
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친구 노래방서 소리" 손님 폭행

○친구가 운영
하는 노래방에서
소리를 퍼온 손님
을 불러내 폭력을 휘두른 조지폭력배
등 2명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S
과 행정대원 신모(27)씨 등 2명은 지
난 11일 새벽 4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친구 오모(27)씨의 노래방
에서 손님 이모(31)씨 등 2명의 얼굴
과 가슴을 주먹 때렀다던 것.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가
"술값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오씨에게 따지자 이씨 등을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는데, 경찰에서 "친구
에게 혐의(?)를 하자 순간 화가 났
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